

# “강진군민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5월29일~30일 본투표 6월 3일

강진군이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소는 읍·면에 총 11개소, 본투표소는 총 20개소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군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 3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강진군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군민의 소중한 한 표가 반드시 행사되도록 절차 안내와 홍보 및 봄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LED 전광판, 마을방송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강진군청 직원들이 함께 전직원 투표 참여 다짐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군민들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애인, 노인,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

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유선을 통해 신청한 유권자의 거주지에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편의와 기표보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유권자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061-433-2474) 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지회(☎061-433-6933)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수령할 수 있다.

직장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공

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전 3일(5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인터넷,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순천시, ‘청렴추진단’ 보고회 개최... 청렴도 제고 총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추진단’ 보고회를 열고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6개 반부패·청렴 시책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별 과제들이 공유됐다.

청렴추진단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국·소장, 그리고 청렴제감도 지표와 관련된 주요 15개 부서의 과장들로 구성됐다. 15개 부서는 부패사건, 인사·조직, 제·세제, 계약관리, 인허가, 보조금, 민원응대 등 분야별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시는 2025년 주요 청렴시책으로 △부서별 민원관리 매뉴얼 구축 △전직원 청렴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소통 학교 운영 확대 △민관 청렴실천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 직원이 청렴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책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전남도 내 5개 시 가운데 청렴도 1위를 기록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광양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SFTS’ 주의 당부

광양시는 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잠복기는 5~14일이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을 동반한다.

이 질환은 치명률이 높고,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옷과 긴바지, 모자, 장갑, 목수건,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박양숙 광양시 보건행정과장은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카메라 뉴스



### 무안읍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무안군 무안읍(읍장 김도원)은 지난 16일 무안읍 복지기동대가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용선 복지기동대장을 비롯한 기동대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기동대원들은 집 안팎에 방치된 생활 집기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 정리하고, 실내 청소를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내부 정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선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구례군,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현장컨설팅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년 차 마을 중 5개 마을(분황, 봉동1구, 상위, 달전, 내외)에 현장 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전라남도, 외부 전문가, 구례군 사업 담당자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을 논의해 실질적인 해답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이장은 “막연했던 부분이 명확해졌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함평군, 방역장비 무료 대여로 자율방역 활성화 앞장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주민의 자율방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모기·파리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개인과 마을, 단체 등에 연무소독기, 휴대용살포기(UVL), 스팀·진공청정기 등 방역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방역 장비는 10월까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법 안내와 함께 약품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자율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